

NEWS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 이동의 신부 이임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이며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인 이동의 신부의 이임식이 8월 28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임식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성의교정 및 8개 병원 주요 보직자를 비롯한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그 동안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 관례상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을 겸임했었다.

이동의 신부는 8월 1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에 의해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직을 이임하면서 본 협회의 회장직도 떠나게 되었다. 2009년 9월 1일 취임한 이후 3년 만이다.

이임사를 통해 이동의 신부는 “지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느끼곤 했지만 좋으신 하느님의 은총과 주위의 많은 훌륭한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기쁘게 일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 이었다”고 회고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조직 개편에 따라 후임 의료원장의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부회장 채영희 신부(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가 협회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되었다(임시 이사회 8.22).

필리핀 나보타스 지역 홍수 피해 지원

필리핀 나보타스 지역에서 빈민 사목을 하고 계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김봉자 수녀로부터 홍수 피해 지원 요청이 있어 8월 31일, 협회 ‘재해지역 긴급지원’ 예산 중에서 일부인 5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제2차 일본성마리아병원 간호사 연수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8개 병원에 소속된 8명의 간호사가 일본의 구루메 성마리아병원과 고토 성마리



아병원에서의 병원 견학과 연수를 진행하였다.

8개 병원의 여러 분야에서 근무 중인 8명의 간호사는 각

자 원하는 파트에서 개별연수와 전반적인 일본의 간호체계 및 일본 가톨릭계 병원 안에서의 환자의 돌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나가사키와 고토를 성지순례하면서 일본의 가톨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사랑의 날개 7기 2차 몽골 다르항 의료봉사



9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동안 몽골 다르항 시에서 사랑의 날개 7기 2차 의료봉사 활동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학교보건사업과 안과 수술 등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에는 사제 2명, 의사 9명, 간호사 10명, 일본 재활치료사 1명, 통역 1명, 그리고 행정지원 6명 등 모두 29명의 봉사단이 참가했다.



다르항 제1병원에서 진행된 내용은 안과 외

래 진료 350명, 백내장 및 익상편 수술 24건, 돋보기 전달 140여 명,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의 의료장비 지원 등이다. 재활의학과는 94명을 진료하였다.

다르항 4번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신체검사와 구강보건 교육에는 모두 1,018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았으며, 교직원 59명의 진료도 같이 이루어졌다. 신장과 체중 측정을 비롯하여 고학년에는 혈압 측정과 필요에 따라 소변검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한 총 25종의 신체검사 도구와 기자재를 몽골 다르항 시 교육국에서 교육국을 비롯한 15개 학교에 전달하였다.

날짜	안과					재활의학과
	외래	수술				
		산립종	익상편	백내장	소계	
9월 10일(월)	50		1		1	19
9월 11일(화)	135	1	7		8	47
9월 12일(수)	123		1	8	9	28
9월 13일(목)	42		4	2	6	-
합계	350명	1	13	10	24건	94명

사랑의 날개 7기 3차 필리핀 나보타스 의료봉사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 8일 간 필리핀 나보타스 시에서 사랑의 날개 7기 3차 의료봉사가 실시되었다.



필리핀 나보타스 시는 마닐라 중심지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바닷가 인근 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지에 도시가 세워졌는데 강보다 수위가 낮아 큰 비가 내리거나 만조(high tide)가 되면 쉽게 물에 잠기는 지역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

도회 수녀님들이 나보타스 시 9개의 바랑가이(區) 중 3개의 바랑가이가 관할 지역인 성로렌조 성당에 수녀원을 짓고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급식 프로그램, 진료소를 운영하며 나보타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지난 2009년 9월 수녀님들의 지원 요청 편지를 받고 나보타스 지역을 해외의료봉사지로 추가 선정하고 2010년 11월부터 필리핀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에도 힘찬 날개 짓은 계속되었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총 20명(신완식의 의료봉사위원장, 지도신부 1명, 의사 7명, 간호사 5명, 약제팀 3명 외)과 현지 통역 봉사자로 구성된 의료봉사단 ‘사랑

의 날개 7기-3차’는 사흘간은 Linchangco Brgy. Hall에서 이틀간은 성로렌조 성당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다.

날짜	합계
10월 7일(일)	381
10월 8일(월)	424
10월 9일(화)	322
10월 10일(수)	574
10월 11일(목)	673
총 진료 수(명)	2,374

5일간 총 2,374건의 진료를 하였으며 필요한 환자에게 EKG, BST, U/A, X-ray, CBC, BC 검사 등도 시행하였다. 또한 어린이 환자들에게 비타민 캔디와 비타민 시럽을 성인들에게는 영양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였다.

정기세미나 및 임시총회, 원목분과위원회 개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수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2012년도 정기세미나 및 임시총회, 원목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의료현장에서의 윤리’를 주제로 전국 38개 회원병원과 직능단체에서 220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고통의 사람들 가운데서의 고통의 사람,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유수일 주교 / 보건사목 담당)



에 대해 특강이 있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윤리 현장 (이건 팀장/ CMC 이념구현팀) ▲의료와 윤리 -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김장한 교수 /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인을 위한 윤리교육의 방향(문용린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또한, 가톨릭병원협회와 가톨릭의료협회 임시총회와 원목분과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3대 협회장 선출

10월 26일 임시총회(여수)에서 10월 1일자로 가톨릭중앙



의료원장에 임명된 천명훈 교수를 제3대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례적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직은 그 동안 사제로만 이어왔었는데 평신도가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 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7차 세계대회 참가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7차 세계대회가 11월 15일에서 17일까지 로마 바티칸시티 시노드홀에서 개최되었다.

“병원, 복음화의 장: 인간적이고 영적인 선교(The Hospital, Setting for Evangelisation: a Human and Spiritual Mission)”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 본 협회에서는 채계순 수녀, 박진미 수녀, 용진선 수녀, 김영택 신부 등 4명을 파견하였다. 회원병원과 직능단체 회원 중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 언어 가능한 사제, 의사, 간호사 중에 선정되었으며 보고서 제출과 몇 가지 미션이 주어진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소속인 본 협회는 2008년부터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세계대회에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항공료와 참가등록비를 지원한다.

몽골 환우 통갈락에게 새 희망을...



본 협회 해외의료봉사(7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양측 대퇴골 및 경골의 심한 변형을 가진 환자 통갈락(Tungalag Jargalsaikhan 여, 27세)과 보호자를 초청하여 의료비, 항공료 지원으로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임영욱 교수)에 입원하여 대퇴골 및 경골 절골술, 단축술 및 외고정술을 11월 19일에 받았다.

통갈락은 1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수술 시간은 최소 한쪽 다리에 8시간씩 걸린다. 또한 한 번에 양쪽 다리의 수술은 불가능하며 한쪽 다리를 2번에 걸쳐서 수술해야 한다.(수술횟수 총 4회)

이 수술은 상당히 위험한 고난이도의 수술이며, 수술 후 외래를 반복적으로 내원하여 양쪽 다리를 교정해야 하며, 교정 후 외 고정을 달아야 한다. 반복적인 골절과 유합으로 변형이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장애로 평생 휠체어에만 의지하던 통갈락에게 한국의 의료진이 새 희망을 준 것이다.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통갈락(모니카)은 몽골 울란바타르 항올성당 신자이며 몽골에서 사목 중인 대전교구 김성현 신부의 추천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통갈락(모니카)은 몽골 울란바타르 항올성당 신자이며 몽골에서 사목 중인 대전교구 김성현 신부의 추천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한 통갈락(모니카)은 몽골 울란바타르 항올성당 신자이며 몽골에서 사목 중인 대전교구 김성현 신부의 추천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해외의료봉사 평가보고회

11월 30일, 2012년 3회(사랑의날개 7기 1차 5. 6~13 몽골 다르항 / 7기 2차 9. 8~15 몽골 다르항 / 7기 3차 10. 6~13 필리핀 나보타스) 실시한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서울성모병원 별관 1층 그랑미셀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NEWS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제15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 (AFCMA 2012) 참가



제15차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Sanur Paradise Plaza

Hotel(사누루 파라다이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에서 강준기 명예회장, 조건현 회장, 고영초 교수 등 3명이 참석하여서 3가지 연제를 발표했다. 15차 AFCMA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톨릭의사들의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아시아 지역 참가국은 총 15개국(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